

투데이 칼럼

설득의 능력

오늘날은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대화,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 시민과 행정인들과의 대화, 조직원과 지도자들과 대화 등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효과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일찍이 켈 블랜차드학자는 "말하지 않는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였듯이 말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비즈니스에 구사되는 말의 핵심은 설득이며 설득은 곧 돈이고 성공을 부르는 무기이다. 설득을 잘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설득 잘하는 사람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계산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능력으로 설득의 50%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설득의 성공률은 이미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준비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양욱

한국 스피치 컨설팅 대표

둘째, 말을 재미있게 하는 능력으로 적절한 인용문과 함께 논리와 감성을 조화시키는 말이 필요하다. 무미건조하게 메시지만 전달해서는 설득에 한계가 있고 소리에 불과한 말이 되고 만다

셋째, 말을 잘 듣는 능력으로 말을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주장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반박하고 공략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

"대화의 제1규칙은 경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과감한 배팅과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인데 설득에서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빠른 눈치와 과감한 결단력과 승부수가 설득의

성공을 높이는데 주요한 변수가 된다.

다섯째,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설득은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에 필요한 능력이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는 내 가족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시키기란 더욱 어렵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상대가 미덥지 않으면 불안하기 마련이다.

앞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설득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첫째, 설득에만 매달리면 설득은 멀리 도망간다.

둘째, 상대가 지금 나를 만나는 이유, 그가 얻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오늘 당장 성과가 없어도 좋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다만, 내게 소중한 것은 타인에게도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심을 수만 있다면 설득은 보이지 않는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다.

설득의 능력을 바탕으로 스피치를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득인데 설득의 요령은 비즈니스맨들에게는 필수이다.

그 요령은 항상 역지사지로 상대를 분석하여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NEDD(욕구)화법이다.

신뢰감이 들도록 구체적이고 감동적, 논리적인 또는 정확한 이론과 통계를 통해 실례를 들어라.

권위를 세워주며, 호의를 베풀고 가능한 칭찬하는 스피치를 해야 한다.

또한 희소가치를 강조하며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스피치를 할 때 상대의 설득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설득의 능력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호감 받는 성공적인 스피치이며 결국 자기의 삶을 윤락하게 하는 것이다.

사설

TPP체결 전북 농업의 앞날 걱정

전북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쌀 개방 압박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약칭 TPP로 알려진 자유무역협정 말이다. TPP는 그 규모가 엄청나다. 다른 모든 FTA들을 압도할 정도이다. 거기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 등 무려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국가의 인구를 생각할 때 글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TPP의 성격을 말하자면 농산물에서부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무역 장벽이 철폐되는 초대형 FTA이다. 현재 정부는 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관은 국제사회에서 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역 장벽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든 다음 정부든 TPP가입은 예정돼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국가 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 오래 고민해왔던 터이다. 문제는 한국이 TPP에 가입했을

때 전북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농가들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터이다. 도내의 농민들이 계속 한숨을 길게 내쉬도록 해서 곤란하다. 전북도는 도내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농업의 안정은 도모돼야 한다. 그래서 또 다시 전북도의 삼락농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삼락농정의 강화로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농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거듭 천명한 바가 있다. 식품 산업 일꾼과 농생명 관련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도 있다. 본보는 사실을 통해서 농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농업을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삼락농정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산학연 관계자들도 도내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금, 브레인 해왔던 터이다. 결국 자기의 삶을 윤락하게 하는 것이다.

독자제언

사회적 약자에 관심과 배려를

경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정서적으로 매달리간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생각이 바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나날이 증가하는 흉폭한 범죄·사회의 무관심과 천대속에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진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에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현실이다.

장말로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된 걸까?

왜 그런 것일까? 나는 이러한 물음에 우리 사회가 공감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이란 무엇일까?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주장이나 감정·생각 따위에 친화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감이란 사전적인 의미 보다 넓게 생각해 공감에는 이해와 사랑 그리고 관심이 내포돼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돼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

다. 흔히 불우이웃 또는 소외계층이라고 부른다.

그 사람들은 사회를 향해 "사는 게 힘들다"고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나도 힘들다"고 일관한 채 그들의 도움 요청을 차단해 버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소외계층들은 점점 고립된 채 타의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될 뿐이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어떤 그림일까? 어떠한 특수계층만 행복한 것이 아닌,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사랑 등이 필요하다.

한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조건이지만 우리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레시피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안호은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독자제언

사랑의 가면을 '데이트 폭력' 이제 그만

지난해 전국 데이트폭력 7,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 509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200여건 인파악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성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물 중 한명이 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동반자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상해에서 자칫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이나 육설로 언어폭력을 한다거나 성관계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신체적 경제적 폭력을 강요하는 지 본인이 자각하는 것

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여성폭력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02-2263-6465,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388, 1388-7179로 신고를 하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세 번째,현행 형법상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해유형에 따라 형법 내지 성폭력관련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일반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성과 관련 피바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해서 엄벌에 처한다.

네 번째, 데이트 폭력 전담반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한다. 일단 데이트 상대를 폭력하면 가해자에게 경고한다. 두번째 적발 시 혹은 고발 확인 시 처벌대상이 되고 만다. 피해자는 필요하다면 폭력신고용 시계를 착용할 수 있고 CCTV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

신원선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기업유치 더 활발해야 한다

기업유치가 보다 활발해야겠다. 지난해 기업 유치 성적표를 보면 기대치보다 저조하다. 도내 고용시장이 열악한 이유는 많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들자면 기업 유치의 저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때 고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관계자의 말이 있었지만 미취업자나 비정규 직장인들은 공감하지 않았다. 신규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는 보도가 반짝 빛났던 때도 있지만 그게 그때 뿐이었다. 기업유치 효과라는 게 기대치만 높혔을 뿐 실속이 없었던 것이다.

저번에도 언급했던 바이지만 다시 말해야겠다. 전북도는 지난해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확한 수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것을 끝이끝대로 믿을 수 없는 작금이다. 그 당시의 반짝 기사에 따르면 7614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4388 명에 이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희망사항이었을 뿐인

이 밝혀졌으니 말이다. 나중에 드러난 걸 보면 투자 규모가 역대 최악이었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해 각서의 누적이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돈의 액수이다.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도 진짜 유치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를 하겠노라고 서명만 해놓고 그 시기를 미루다가 파기시켜버린 기업들이 그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므로 유치가 더 활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실제로 투자한 기업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날 여러 번 언급했거니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함께 사진 찍는 식의 유치로는 일자리 창출도 고용 안정도 확신할 수 없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선행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전북도는 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여야겠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